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담론 및 쟁점의 분석과 형상화*

윤 희 윤**

〈목 차〉

- | | |
|-----------------------|---------------------------|
| I. 서 론 | 3. 정보전문직과 사서직 |
| II. 미래상에 대한 담론의 실체해부 | IV. 도서관 미래상의 형상화 |
| 1. 담론의 통계적 분석 | 1. 도서관의 역사적, 변증법적
발전과정 |
| 2. 담론의 실체해부 | 2. 미래상의 형상화 |
| III. 미래상에 대한 담론의 쟁점분석 | V. 결론 및 제언 |
| 1. 전자매체와 인쇄매체 | Abstract |
| 2. 정보접근과 실물소유 | |

I. 서 론

인류의 장구한 사회변동사를 반추해 보면, 한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미래학자와 사회학자를 위시한 斯界의 專門家들이 당대의 사회사조와 실제적 특징들을 규정하는 동시에 신세기에 도래할 사회현상들을 예견하고 형상화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세기말의 결산작업에는 미래에 대한 장미빛 예측이나 예단이 난무하기 마련인데, 여기에는 대체로 막연한 不安感과 期待心理의 일단이 내포되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마저 개재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과의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

극한대립으로 泥田鬪狗의 양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현상은 필연의 법칙인양 문헌정보학계에서 발원하여 도서관계로 확장되고 있다.

아마도 20세기의 종착역을 목전에 두고 학계와 현장에서 회자되는 화두는 ‘圖書館의 未來像’으로 집약할 수 있다. 甲論의 核心主題는 종이책의 종말, 서물시대의 종언, 종이없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전통적 도서관의 해체성과 전자매체의 급신장, 정보네트워의 대중화, 인터넷 검색환경을 감안한 電子(또는 디지털)圖書館 構築의 當爲性이며, 乙駁의 要諦는 부조리한 도서관현장의 성찰을 통한 실물장서와 고유문화를 강조하는 傳統的 圖書館의 機能強化論이다.

그렇다면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계속적인 투입에도 불구하고 불용도서의 집적소로 전락하여 정보접근 및 자료입수에 따른 累積的 不滿이 가파른 上昇曲線을 그리는 반면에 規模의 經濟性과 產出效果는 下向曲線을 나타내는 지금의 도서관을 전자매체와 정보기술로 무장한 디지털도서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한 논리인가. 아니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본으로 되돌아가 藏書開發을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파하여 도서관의 存在價値와 奉仕機能을 제고시키면서 점진적 변화를 모색하자는 논리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가. 다만 사회사조가 불확실하고 다방면에서 정보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적 상황임을 감안하면, B.C. 21세기형 물리적 공간개념으로서의 전통적 도서관론과 A.D. 21세기형 가상공간적 개념으로서의 디지털도서관론의 대립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도서관의 미래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하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二分法的 思考方式에 기저한 對立論調가 지속되면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극도로 편향된 시각이 支配論理로 자리잡을 때는 미래도서관이 方向性을 상실하고 표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초래할 변혁의 파고에 매장되기 전에 지금까지 제기된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담론, 즉 전통적 도서관론과 디지털도서관론의 실체를 개관하고 논쟁점들을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첨예하게 대립되는 論理構造의 實像과 虛像을 규명함으로써 一致和解를 유도

하고, 도서관이 지향해야 할 方向座標를 설정하여 바람직한 未來像을 形象化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미래상에 대한 담론의 실체해부

1. 담론의 통계적 분석

국내외를 막론하고 미래도서관은 어떤 모습으로 변모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형상화하는데 혈안일 정도로 도서관의 미래상은 시대적 명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명제의 해법으로 등장한 단골메뉴가 이른바 다우린(K. E. Dowlin)에 의해 구체화된 전자도서관¹⁾을 비롯하여 최근에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상이다. 국내에서도 1980년대 말부터 전자도서관 또는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이론연구가 단편적으로 발표되다가 한국문헌정보학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KOLISS '96 : 1996년 디지털도서관 국제학술회의'에서 공론화되었고, 그 실상과 허상에 대한 담론도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먼저 지난 5년간(1991-1996년) 국내에서 발표된 미래도서관 담론을 게재지별로 분석하면 <표 1>과 같다. 한국도서관협회의 「圖書館文化」,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국회도서관의 「國會圖書館報」, 산업기술정보원의 「정보관리연구」에 수록된 논문이 29편(38.2%), 「한국문헌정보학회지」·「圖書館學論集」·「情報管理學會誌」에 게재된 논문이 13편(17.1%), 한국문헌정보학회·한국도서관정보학회·한국정보관리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 논문집²⁾(학

1) Kenneth E. Dowlin, *The Electronic Library: The Promise and Process*(New York : Neal-Schuman, 1984)

2)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1-3집(1995-1996) ; 韓國情報管理學會, 學術大會論文集, 제1-3집(1994-1996) ;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아대학교 도서관, 동아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 해외석학 초청 특별강연 및 학술강연회(부산: 동아대학교도서관, 1996) ;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KOLISS '96 :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gital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September 10-13, 1996*(Seoul : KOLISS, 1996)

회지에 중복수록된 것은 제외)에 발표된 논문이 34편(44.7%)이다. 그러나 학술대회의 발표논문 중에서 「'96 디지털도서관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에 수록된 27편을 제외하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7편에 불과하다. 결국 국내에서의 미래도서관 논의는 기관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담론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래도서관에 대한 담론을 주제별로 분석하면 미래모형(전통적 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전자도서관, 멀티미디어도서관, 가상도서관 등)을 형상화하거나 디지털도서관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술적 문제나 세부주제를 언급한 논문이 58편(76.3%)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전자매체의 저작권을 포함하여 정보매체를 다룬 논문이 13편(17.1%)이며, 사서직 또는 정보전문직의 미래와 역할을 언급한 논문이 5편(6.6%)이다.

마지막으로 미래도서관 담론에 관한 논문의 게재지별, 주제별 변화추이를 연도별로 분석·도시하면 <표 1>와 같다. 1991년 2편, 1993년 6편, 1994년 1편, 1995년 16편, 그리고 1996년 51편으로 최근에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에서 국가도서관 및 주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또는 전자도서관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미래도서관의 모형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 1) 미래도서관 담론의 게재지별 및 주제별 분석

게재지별 / 주제별		연도						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게재지별	기관지	2		6		8	13	29(38.2)
	학회지					4	9	13(17.1)
	학술대회논문집				1	4	29	34(44.7)
	소 계	2		6	1	16	51	76(100.0)
주제별	미래도서관 모형(봉사)	1		3		13	41	58(76.3)
	정보매체(장서, 저작권)			1	1	2	9	13(17.1)
	사서(정보전문)직	1		2		1	1	5(6.6)
	소 계	2		6	1	16	51	76(100.0)

2. 담론의 실제해부

미래도서관에 대한 담론들의 성향은 인쇄매체 중심의 도서관 패러다임을 혁신시키려는 급진적 디지털도서관론과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보수지향의 전통적 도서관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바,³⁾ 각각의 실체를 해부하면 다음과 같다.

(1) 급진적 디지털도서관론

가. 디지털도서관론의 전제조건

도서관의 미래상을 디지털도서관으로 형상화하는 담론들은 巨視的 次元의 豫測論理와 微視的 次元의 認識論理에 기반하고 있다. 전자는 정보화사회로의 진입,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전자매체의 대중화와 인쇄매체의 종언, 정보가치의 비등과 정보력의 선점의지, 국가차원의 경쟁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정책, 디지털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가정보정책의 추진 방향을 예측하는데서 비롯된다. 반면에 후자는 업무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전자매체 구입의 증가, 정보네트웍 및 인터넷 접속, 디지털도서관

- 3) 최근 문헌정보학계의 일각에서는 필자가 디지털도서관론을 급진성향, 전통적 도서관론을 보수성향으로 양분한데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保守主義는 尙舊의 역동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매달리는 소극적인 태도인 반면에 急進主義에는 根本(근본)의 의미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根本을 우선적으로 찾고 미래를 형상화하는 傳統的 圖書館論을 急進的인 것으로, 디지털圖書館論을 保守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면 그럴듯하게 보이나 자카당착 내지 자기합리화의 논리전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보수와 급진의 구분은 상식선, 다시 말해서 사전적 의미에 준거하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급진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理想의 實現을 위하여 現實의 政體나 社會制度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급격하게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는 주의'인 반면에 보수주의는 '現狀維持나 漸進的 改革을 받아들이는 주의'이다. 보수주의의 핵심은 전통적 권위와 규범을 방어하고 전승된 특권과 소유관계에 따른 위계적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自由放任的 進歩樂觀主義를 반대하는데 있다. 따라서 양대 담론의 쟁점이나 한계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전통적 도서관론이 급진적 담론이라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프로젝트의 추진과 가시화, 정보중심의 접근 및 검색논리, 이용행태의 변화 등 도서관중심의 환경변화를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도서관 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논리와 인식논리를 정합하여 구체화한 모형이 '미래형 대학도서관 모형개발 연구'이며, 1996년 '디지털도서관 국제학술회의'에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 구축현황, 방법론, 모형 등이 제시되었다. 이들 연구를 비롯한 국내의 많은 논문⁴⁾이 전자도서관 내지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장미빛 미래상(?)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論理展開의 始發點으로 삼은 前提條件은 다음과 같다.

① 21세기의 정보사회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다양화, 매체의 다양화,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멀티미디어 시대가 도래한다. 즉, 電子媒體 中心의 情報社會가 된다는 것이다.

② 미래사회에는 정보유통수단이 인쇄매체에서 전자매체로 전환됨에 따라 도서관의 중심매체도 印刷資料에서 電子資料로 대체된다. 즉, 도서관의 자료 수집 및 장서개발 패러다임이 전자매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기존의 인쇄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③ 신세기에는 자료의 保有보다 接近 및 檢索機能이 중요하게 된다. 환언하면 자료의 전자화 내지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화, 정보네트워크 구축, 인터넷

4) 한상완 등, "미래형 대학도서관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9집(1995, 12), pp. 63-13; 정준민, "정보사회를 대비한 대학도서관 개념의 재정립,"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집(1995, 10), pp. 73-94; 백항기, "대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2집(1995, 10), pp. 113-126; 최원태, "전자도서관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50권, 제4호(1995년 겨울), pp. 94-124; 한상완 등,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1996, 9), pp. 37-68;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op. cit.*, pp. 1-296; 고영만, "정보매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제34회 全國圖書館大會主題發表論文集(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6), pp. 17-35; 최석두, "전자도서관(Digital Library)의 개념과 그 발전추세," 제34회 全國圖書館大會主題發表論文集, pp. 91-118; 홍현진, "디지털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1996, 12), pp. 105-127; 김국희, 이운철, "디지털도서관 구축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소고," 도서관, 제51권, 제4호(1996년 겨울), pp. 83-88;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의 실체에 관한 연구(서울: 동도서관, 1996) 등이다.

넷 접속 등은 물리적 소장개념을 원격 접근개념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④ 지역의 단위도서관들은 실질적으로 그 중요성이 감소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정보자료가 어디에 소장되어 있든간에 이용자들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보원에 접근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나. 디지털도서관론의 정황

먼저 電子媒體의 出現과 增加趨勢이다. 전자매체의 효시는 1960년대 미국의 회도서관의 자기테이프 목록과 국립의학도서관의 MEDLARS 색인이다. 1970년대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목록 및 색인류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었고, 1980년대는 플로피 디스크 및 CD-ROM이 신정보매체로 등장하면서 책자형과 전자판이 병행출판되기 시작하였으며⁵⁾, 현재는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전자화가 진행되고 있다.

① 소장자료의 전자화: 미국은 미국과학재단(NSF), 항공우주국(NASA), 국방성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재정지원으로 6개 대학도서관이 자료의 전자화를 전제로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Chadwyck Healey사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1900년까지의 영미시집, 영국소설집, 라틴의 敎父全集, 프랑스의 철학저작집, 괴테 등의 작품집, 인문계의 대형세트물 등을 전자화하고 있다. 일본의 통산성 정보처리진흥사업협회와 국립국회도서관이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인 電子圖書館實證實驗시스템의 전자화 자료는 古地圖 등의 단매물 귀중서, 명치시대에 간행된 사회과학도서, 「世界」, 「中央公論」, 「文藝春秋」, 「潮」 등의 종합월간지, 만화잡지 및 영화판 제잡지 등이다. 그런가 하면 1971년부터 'Project Gutenberg'를 추진하는 일리노이대학의 하트(M. Hart)는 2001년까지 그리스, 라틴고전 및 영미문학 작품, 敎典, 참고도서 등 1만건의 전자전문을 작성·공개할 예정이다.

② 인쇄형과 전자판의 병행출판: 신문의 경우, New York Times, Financial Times, 朝日新聞, 日本經濟新聞, 국내 중앙지 등의 당일분을 아침

5) 横山桂, “電子圖書館의 出現と書物および圖書館のゆくえ,” 圖書館界, Vol. 48, No. 3 (Sept. 1996), pp. 139-140.

에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누적분은 축쇄판 및 CD-ROM판으로 배포되고 있다. 학술지도 전문이 책자형과 전자판으로 동시에 출판되고 있는데 ADONIS가 대표적인 CD-ROM판이다. 일본학술정보센터의 전자도서관시스템은 1997년 4월부터 일본의 학협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400종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4,0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중에서 이용도가 높은 Oxford English Dictionary, Books in Print Plus, DDC(21th ed.), Science Citation Index,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Art & Humanities Citation Index, Dissertation Abstract On-disc, MEDLINE, 廣辭苑, 現代用語基礎知識, 한국문헌목록정보 등은 책자형과 전자판으로 동시에 출판되고 있다.

③ 전자출판: 대부분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하이퍼미디어 및 멀티미디어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동화상정보, 음성정보 등을 수록한 전자형태로 출판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의 WWW상에 공개되는 잡지류, 회색문헌, 메타정보, 단편정보 등은 인쇄판이 나온 후에 전자판으로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Ulrich's International Periodicals Directory의 최근판을 보면 CD-ROM판으로의 입수가능성, 온라인 이용가능성을 주기고 있다.

상술한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정보매체의 전자화나 전자출판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것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전, 출판기술의 진보, 전자자료의 특성 등에 기인한다. 정보매체의 전자화를 부추기는 구체적인 정황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이미 선진국에서는 컴퓨터 조판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게다가 電子組版, 電算寫植을 포함하여 컴퓨터에 입력되는 데이터는 전자자료 뿐만 아니라 인쇄매체로도 출판될 수 있으며, 활판인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② 일단 컴퓨터에 입력된 데이터는 전자자료로 출판하는 것이 제작원가나 판매측면에서 유리하고, 판형의 확대와 축소가 용이하며, 특히 누적판이나 개정판의 발행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전자판은 인쇄자료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하므로 원격지

정보자료를 검색하거나 속보성이 증시되는 자료에 절대적인 잇점이 있다.

④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네트워크환경에서 CD-ROM판으로 유통되는 목록정보 및 색인초록지와 같은 검색도구는 불특정 다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상용되는 추세이다.

⑤ 전자자료는 인쇄매체와 달리 물리적인 손상없이 백업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의 배치공간이 증가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장공간은 현격하게 줄어든다.

다음으로 電子圖書館 또는 디지털圖書館의 現實化를 들 수 있다. 부시(G. Bush) 대통령은 1991년 7월 10일 ‘도서관정보서비스에 관한 백악관회의’에서 “정보는 민주주의의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무기이며, 우리 세계의 가장 숭고하고 확실한 희망이다”⁶⁾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인식관은 국가정보인프라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2월 브루셀에서 개최된 ‘정보사회에 관한 G7자료회의’에서는 지구촌의 정보화에 대한 공통비전을 확립하기 위하여 8대 원칙이 확인되었고, 그 원칙에 입각하여 발족한 11개의 프로젝트 중에 전자도서관이 포함되었다.⁷⁾ 국내에서도 정부가 1993년에 ‘超高速情報通信網 構築에 관한 綜合計劃과 細部 推進計劃’을 발표하면서 그 응용분야의 하나로 디지털도서관서비스를 제시하였고, 1996년에는 최고의 국가전략으로 ‘情報化促進基本計劃’을 확정하였다.

이제 전자도서관 내지 디지털도서관은 세계 및 국가정보인프라의 구축에 있어서 필수적인 응용분야로 인식될 만큼 정부나 민간단체 및 단위도서관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현되었거나 개발중에 있는 디지털도서관 구축계획을 관종별로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⁸⁾

6) *Information 2000: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the 21st Century Final Report on the 1991 White House Conference on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Washington, D. C. : U. S.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92), p. 253.

7) <http://www.ibm.com/Sponsor/g7live/10017.html>

<http://www.ibm.com/Sponsor/g7live/10018.html>

8) Caroline R. Arms, ed., *Campus Strategies for Libraries and Electronic Information*(Digital Equipment Press, 1990) ; John W. Berry, "Digital Libraries : New Initiatives with Worldwide Implications," *IFLA Journal*, Vol. 22, No. 1(1996), pp. 12-13 ; Charles B.

① 국가도서관 : 미국 의회도서관의 ‘National Digital Library Program’, 영국 국가도서관의 ‘Initiatives for Access’,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자료디지털화계획’,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전자화계획’, 네덜란드 왕립도서관의 ‘전자출판물보관소 설립계획’, 덴마크와 아이슬랜드를 비롯한 북유럽 제국가의 ‘전자도서관프로젝트’,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립도서관과 3개 대학도서관이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자료디지털화 프로젝트’, 뉴질랜드 국립도서관의 ‘벽이 없는 도서관 건설계획’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關西館(Nakano)의 ‘디지털계획’,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계획’ 등이다.

② 대학도서관 : 미국의 대표적인 구축사례는 NSF/DARPA/NASA의 ‘Digital Library Initiative Projects’이다. 세부계획으로는 미시간대학의 ‘The University of Michigan Digital Libraries Research Project’, 일리노이대학의 ‘Building the Interface’, 캘리포니아대학(Berkeley)의 ‘The Environmental Electronic Library’, 카네기 멜론대학의 ‘Informedia’, 스탠포드대학의 ‘The Stanford Integrated Digital Library Project’, 캘리포니아대학(Santa Barbara)의 ‘The Alexandria Project’가 있다. 그 외에도 Elsevier사와 9개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TULIP(The University Licensing Program)’, 카네기 멜론대학과 UMI(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사의 ‘Virtual Library Project’, 컬럼비아대학의 ‘JANUS’, 버지니아공과대학의 ‘Envision’, 영국 De Montfort University의 ‘ELINOR

Lowry and Denise A. Troll, “Carnegie Mellon University and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Virtual Library Project,” *Serials Librarian*, Vol. 28, No. 1/2(1996), pp. 143-169; <http://http2.sils.umich.edu/UMDL/HomePage.html>; <http://dli.grainger.uiuc.edu>; <http://elib.cs.berkeley.edu>; <http://www.informedia.cs.cmu.edu>; <http://diglib.stanford.edu>; <http://alexandria.sdc.ucsb.edu>; 杉本 重雄, “デジタル図書館に関する最近の話題 : 大學圖書館の利用環境, 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メタデータ,” *情報管理*, Vol. 39, No. 7(Oct. 1996), pp. 474-475; 横山桂, 前掲論文, pp. 142-143; 최원태, 前掲論文, pp. 83-108-113; 김국희, 이윤철, 前掲論文, pp. 83-88; 한상환 등,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계획에 관한 연구,” pp. 37-68;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전게서, pp. 3-39.

(Electronic Library Information Online Retrieval)', 유럽연합(EU)에 소속된 잉글랜드 중앙판카서대학·아일랜드 더블린시립대학·그리스 에게해대학이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추진중인 '벽이 없는 도서관프로젝트', 국립 오스트레리아대학의 'Elisa', 奈良尖端技術大學院大學(NAIST)의 'MANDARA Library',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의 전자도서관개발실 개설, 한성대학교의 전자정보관, 서울대학교 전자도서관의 구축계획 등이 있다.

③ 공공도서관 : 미시간주의 공공도서관이 미시간대학과 협력·추진중인 'Michigan Electronic Library', 공공도서관을 인터넷의 액세스 포인트로 하는 'InFoPeople', 1996년 4월 디지털도서관의 간판금으로 샌프란시스코의 시청건물을 개조하여 개관한 뉴메인도서관(New Main Library)이 있다.

④ 기타 : 미국화학회의 'CORE(The Chemistry Online Retrieval Experiment)', AT&T Bell Laboratories의 'Library RightPages Service', 미국해군연구소(Naval Research Laboratory)의 'Scientific-technical Digital Library', 일본 학술정보센터의 'NACSIS-ELS', 전자도서관연구회(Electronic Library Research Group)와 FUJITSU이 공동으로 개발중에 있는 'Ariadne', 신세대통신망실험협의회(BBCC)의 '전자도서관프로젝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전자도서관 구축계획, LG의 상남전자도서관 개관, 한국문예진흥원·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박물관의 이미지 및 영화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도서관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사례는 일과성의 유행이나 미래의 막연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목도하는 실제상황이다. 그렇다면 디지털도서관이 구축되는 요인은 무엇인가. 몇 가지의 구체적인 정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의 존재이유는 인간의 通時代的 知慧와 知識이 농축된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료보존보다 이용과 제공에 치중하는 경향이므로 이용자들이 외면하는 도서관과 자료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도서관의 구현은 이용중심주의를 지향하며, 소유보다 접근을 중시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는 도서관상이다.

②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은 변죽만 울리면서 부진하였던 資源共用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서지유틸리티 및 도서관네트웍을 통한 자원공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도서관계가 디지털도서관을 구현하여 자료공용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③ 디지털도서관은 時空間的 制約을 해소한다. 폐관시간이나 심야에도 원격지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므로 지역 및 국가차원의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④ 디지털도서관은 전통적 도서관과 달리 자료의 배열이나 출납과정이 불필요하고, 수장공간의 문제가 완화되며,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접근이 허용되므로 복본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용자는 정보 접근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간단한 조작으로 타도서관의 자료를 망라적으로 검색하고 입수할 수 있어 문헌복사 및 상호대차업무가 감소한다.

⑤ 오늘날 도서관계는 귀중서나 희귀서 등의 이용 및 보존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가 디지털화되면 손쉽게 이용하는 동시에 원본의 손상도 줄일 수 있다.

(3) 디지털도서관론의 요체

도서관 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논리와 인식논리, 목하에 전개되는 정황들에 기초하는 급진적 미래도서관론의 요체는 현재의 인쇄매체 중에서 상당부분이 미래사회에 전자매체로 대체됨에 따라 도서관도 자료소장이나 물리적 공간의 개념에서 정보접근이나 참조 및 가상공간의 개념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전자도서관 내지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담론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도서관의 개념은 이용자가 컴퓨터와 통신네트웍을 통하여 멀티미디어형태로 수용된 分散 知識倉庫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정보활동지원시스템이다. 이 경우에 디지털도서관이 기존의 도서관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지, 아니면 전통적 기능의 다각화 및 확장을 의미하

는지에 대해서는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업무기능의 전자화, 수집매체 및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통신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접근 등을 강조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② 디지털도서관의 蓄積媒體는 종래의 도서 및 비도서자료 뿐만 아니라 동화상정보, 멀티미디어정보를 포함하며, 전문데이터베이스가 중심매체로 등장한다. 따라서 수집된 모든 정보자료의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지데이터의 기술방식도 MARC형식에서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형식 또는 MARC/SGML형식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③ 디지털도서관의 기능은 텍스트, 그래픽, 소리, 이미지 등의 각종 형태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형태로 저장하고, 이들을 편리하게 검색하는 기능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에 절대 의존하는 디지털도서관은 자료소장보다 정보접근을 더 중시하므로 인쇄매체를 수집·정리하여 인간적으로 봉사하던 사서의 역할이 정보전문가, 검색중개자, 정보검색가로 전환된다.

⑤ 상술한 논지와 인터넷환경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가장 급진적인 담론이 假想圖書館(virtual library) 혹은 假想現實圖書館(virtual reality library)이다. 인쇄매체의 종말과 모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전제로 하는 가상공간의 도서관에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책과 진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접근방식으로 정보자료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건물과 장서는 도서관의 참조기능을 지원할 뿐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도서관론은 컴퓨터 중심의 업무처리, 전자매체의 대중화와 서물시대의 종언, 자료의 디지털화, 원격지 접근환경의 조성, 접근우선주의 등을 부각시키는 가운데 정보접근 및 제공기능을 극대화하는 논리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적지 않은 모순과 함정이 내포되어 있으며, 특히 圖書館의 本質과 機能性, 技術的 可能性, 社會的 受容性, 實現可能性 등을 감안하여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또다른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2) 보수지향의 전통적 도서관론

가. 전통적 도서관론의 전제조건

디지털도서관론과 첨예하게 대립되는 소위 보수지향의 전통적 도서관론은 미래사회에 대한 예측논리보다 도서관중심의 철저한 現場論理에 입각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정보인프라 구축정책의 가시화, 디지털도서관 프로젝트의 계획과 추진, 정보매체산업의 급성장, 신정보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업무 전산화, 소장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네트워크 및 인터넷 접속, 이용자의 정보접근 및 검색행태의 변화 등 관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현장의 열악성과 문화의 척박성, 절대 부족한 공공도서관수와 부실한 봉사내용, 유명무실한 학교도서관의 위상,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부족과 조악성, 유능한 전문사서의 부족, 비전문직 관장에 의한 운영의 파행성 등을 통탄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반성논리에 기초하여 구체화한 담론이 디지털도서관론을 질책하는 전통적 도서관의 기능강화론이며, 1996년부터 일련의 반박성 논문으로 발표되었다.⁹⁾ 이 논문들을 비롯한 다수의 담론에서 논리전개의 시발점으로 삼은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印刷媒體의 終末이나 종이책의 死滅을 전적으로 부정한다. 미래에도 인

9) 이수상, “미래도서관, 현실인가 환상인가: 우리 사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국 사서협회소식, 제5권, 4호(1996, 3), pp. 4-14; 김정근, 이용재, “참을 수 없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가벼움,” 圖書館文化, 제37권, 제4호(1996, 7·8), pp. 4-29; 김정근, 김영기, “다시 한 번 ‘미래도서관 담론’에 대하여,” 圖書館文化, 제37권, 제5호(1996, 9·10), pp. 17-31; 김정근, 김홍성, “계몽의 아침에 꾸는 악몽,” 도서관, 제51권, 제3호(1996, 가을), pp. 31-55; 최정태, “도서관의 정보마인드와 운영주체,” 第34回 全國圖書館大會主題發表論文集, pp. 131-143; 김정근, “실물장서, 아직도 중요한가?” 동아대학교 개교50주년 기념 해외석화 초청 특별강연 및 학술강연회(부산: 동아대학교 도서관, 1996), pp. 39-51; 양재한, “미래도서관에서의 소장(ownership)과 접근(access),” 1997년도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동계학술발표회(부산: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7), pp. 1-20.

쇄매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전자매체가 대량 생산되어 유통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인쇄매체를 압도할 수는 없다.

② 書物時代의 終焉을 운운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독서습관과 독서행위의 유용성을 무시하는 물역사적인 분석일 뿐만 아니라 技術盲信主義(technolust)에서 비롯된 가벼운 담론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도서관에 전자매체가 도입되고 보강되면 기존 장서에 대한 요구가 원활해지고 인쇄자료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③ 정보화사회에는 당연히 도서관업무를 기계화하고 원격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자료이용이나 정보접근의 편의성을 제공해야 하지만, 인류의 정신문화와 지식세계를 집적한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축적·보존하고 후대에 전수해야 하는 전통적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④ 급진적 디지털도서관론은 도서관현장에 대한 集團不感症, 학문의 西歐追隨性과 그것으로 인한 植民性 내지 從屬性, 연구자들의 知的 虛偽意識, 技術盲信主義의 副產物로 치부한다.

나. 전통적 도서관론의 정황

미래의 도서관상을 형상화할 때,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용어가 디지털도서관이지만 이에 반발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장의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傳統的 圖書館의 機能強化論을 고수하고 있다.

① 도서관현장의 藏書構成이 매우 부실한 상태인데도 내실있는 기본장서의 개발과 확보를 외면한 채 컴퓨터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원자료에 직접 접근하는 디지털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②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양산된 정보매체 중에서 전자형태가 점유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려면 기존 자료와 수집할 자료의 디지털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현재에도 미래에도 실현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문제, 저작권, 축적용량, 데이터의 기술 및 색인방식, 변환된 자료의 신뢰성, 접근집중에 따른 과부하문제 등이 미결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③ 인쇄자료에 습관화된 이용자에게 모든 형태의 자료를 전자형태로 독서하거나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매체에 수록된 데이터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휴대하면서 독서하기가 곤란한 반면에 종이매체는 인류가 개발한 최상의 독서수단이다.

④ 인쇄매체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국가 및 지역정보화를 주도하는 선진국에서도 인쇄자료의 출판 및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도서관에서의 대출량과 상호대차 이용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⑤ 미국 연구도서관협회에서 간행한 대학도서관 평가지표를 보면 장서수, 정기간행물수, 연차증가량, 자료구입예산, 직원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서와 관련된 지표의 평가비중이 가장 높으며, 훌륭한 대학도서관일수록 實物資料의 確保에 치중하고 있다.

이처럼 인쇄매체는 전자매체가 대신할 수 없는 독특성과 우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선호의 대상이 되며, 도서관과 종이책의 共生關係는 永續性을 지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현장에서 당면하는 구입예산의 한정성, 복본구입의 문제, 정리의 지연성, 수장공간의 확보문제, 파손문제, 보존문제 등과 이용자들이 직접 서가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데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다. 전통적 도서관론의 요체

도서관현장 중심의 철저한 반성과 정황분석에 입각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전통적 도서관론의 요체는 장서개발이나 인간적 봉사 등 도서관의 기본기능을 등한시하는 디지털도서관론에 대한 반론이다. 환원하면 도서관은 이용자들이 정보자료를 통하여 선대들과 교감하고 자신들의 인성이나 지적 발전을 도모하도록 원조하는 기관인 만큼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수용하는 실물장서를 구축하고 미소장 자료에 대한 원격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본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 담론의 논지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의 사명은 通時代의 古典과 共時代의 力作을 비롯한 인간정신을 풍요롭게 하는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이용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미래의

도서관은 언론사처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정선되고 가공된 정보자료를 구비하여 독서재료와 사색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② 도서관은 情報工場이나 情報機關도 情報商店도 아니다. 도서관의 존재 이유는 인간과 지역사회를 위한 인간적인 봉사이며, 주된 관심사 또한 데이터나 정보가 아닌 지식과 이해이다.

③ 도서관의 수집매체는 인쇄자료가 주종을 이루는 기존장서에 전자매체가 추가되어 상보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튼튼한 실물장서의 소유를 장서문제의 중심부에 위치시키는 반면에 정보접근은 기본을 강화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간주한다. 결국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는 轉換이나 代置의 관계가 아니라 追加와 補強의 관계이다.

④ 미래에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현재처럼 도서관을 이용하고 인쇄매체로 된 종이책을 계속 선호하며, 소수의 계층만이 전자적 접근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것이다. 당연히 실물자료의 소장을 통한 이용봉사와 미소장 자료의 접근봉사가 공존하는 시대이다.

⑤ 미래도서관에서 사서의 도움없이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는 소수계층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은 사서의 人間的 援助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정보제공을 유일한 기능으로 간주하는 정보전문가가 아닌 튼튼한 실물장서를 바탕으로 자상한 도움을 주는 사서로서의 역할이 중대될 것이다.

⑥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술이 도서관보다 상위 화두로 설정되어서는 곤란하며, 도서관발전에 유용한 도구로 수용해야 한다.

이처럼 보수지향의 전통적 도서관론은 미래에도 인쇄매체와 전자매체, 일차원적 텍스트와 하이퍼텍스트, 사서에 의한 중개와 이용자의 직접접근, 원문소장과 디지털접근, 건물로서의 도서관과 인터넷이소로서의 도서관이 공존한다는 논리¹⁰⁾를 빌어 본질적 기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적지 않은 論理的 矛盾과 守舊

10) Walt Crawford and Michael Gorman,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and Reality*(Chicago : ALA, 1995), pp. 178-181.

的 思考方式이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情報環境의 變化趨勢, 情報資料의 生産量과 圖書館의 收集餘力, 收藏空間問題, 具體的 方法論과 戰術의 不在 등을 감안하면 반론의 여지가 다분히 있다.

Ⅲ. 미래상에 대한 담론의 쟁점분석

도서관의 미래상을 급진적으로 형상화한 디지털도서관론과 이를 견제하는 일련의 반박성 논조들이 보수성을 견지하면서 또다른 담론의 틀을 형성한 전통적 도서관론의 실체를 분석한 결과, 나름대로는 논리적 설득력과 선명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담론의 전제조건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사조나 도서관현장의 여러 정황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를 집약한 <표 2>의 쟁점비교에서도 양자간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표 2> 디지털도서관론과 전통적 도서관론의 쟁점비교

담론 항목	급진적 디지털도서관론	보수지향의 전통적 도서관론
주도세력	· 문헌정보학분야의 정보학자 · 타분야의 정보기술/공학자 · 현장경험이 적은 학자와 사서	· 문헌정보학분야의 도서관학자 · 타분야의 인문/사회과학자 · 실무경험이 많은 학자와 사서군
출발점	· 인쇄매체의 급격한 쇠퇴 내지 종언, 전자/디지털정보 보편화	· 인쇄매체의 계속적 증가와 영속성, 전자매체의 제한적 활용
수집자료	· 도서, 학술지, 회색문헌 등의 인쇄자료보다 전자매체에 치중	· 인쇄자료 수집에 치중, 전자매체는 부분적, 보완매체로 간주
추적방식 중심매체	·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 · 중심매체는 전문데이터베이스 위주의 디지털정보(전자매체가 인쇄매체를 대체)	·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 거부 · 중심매체는 도서위주의 실물장서(전자매체는 인쇄매체를 보완, 보강)
장서개발 관리방식	· 문헌전달에 크게 의존하는 "Just in time" 방식의 장서 관리	· 실물자료의 수집을 목표로 하는 "Just in case" 방식의 장서 개발
봉사내용 지향점	· 정보중심 접근/검색봉사 우선 ·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 브라우징이 가능한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의 극대화	· 문헌중심 이용자봉사 우선 · 건물내에 소장하고, 실물자료의 브라우징과 보존 및 이용기능의 극대화

담론 항목	급진적 디지털도서관론	보수지향의 전통적 도서관론
전문적 역할	· 정보전문가(검색중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비인간지향적 봉사전문직)	· 정보전문가보다는 전통적인 사서의 역할을 중시(인간지향적 봉사전문직)
평가지표	· 정보의 이용 및 전달가능성	· 소장자료의 규모
기조/위상	· 기능과 효율성/네트워	· 전통과 권위/장소 및 건물
시스템적 성격	· 정보접근 및 검색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정보중심의 활동지원 시스템(소프트웨어로서의 도서관)	· 자료이용과 독서공간의 제공,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장서 및 건물 중심의 활동지원시스템(하드웨어로서의 도서관)
도서관의 미래상	· 접근(access)중심의 도서관 모형(게이트웨이로서의 도서관)	· 소유(ownership)중심, 소유와 접근이 공존하는 도서관 모형(知識寶庫로서의 도서관)

이와 같이 출발점에서부터 미래상을 형상화한 모형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대립되거나 상호간에 論理的 矛盾點과 脆弱性을 다수 내포하고 있는 디지털 도서관론과 전통적 도서관론의 주요 쟁점사항을 정보매체, 봉사내용과 지향점, 그리고 전문직의 역할로 대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자매체와 인쇄매체

문헌정보학 분야의 정보학자, 타분야의 정보기술자와 정보공학자, 현장경험이 적은 학자와 사서집단이 주창하는 디지털도서관론은 印刷媒體의 급격한 衰退나 終焉과 더불어 전자매체의 보편화를 예견하면서 전자매체의 수집에 치중하고, 기존의 모든 자료를 디지털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반면에 도서관학자, 타분야의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자, 실무경험이 많은 학자집단과 사서 등이 주도하는 전통적 도서관론은 인쇄매체의 계속적 증가와 영속성, 전자매체의 제한적 활용성에 근거하여 미래에도 인쇄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電子媒體를 部分的 또는 補充的 媒體로 간주하며,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가 불가능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의 논리와 주장이 더 설득력을 지니며, 미래를 통찰하는 혜안이라 할 수 있는가? 논리전개에는 모순이나 취약성이 없는가? 과연 미래의 도서관에서는 전자매체가 인쇄매체를 대체하거나 전자매체로 가득 채워질 것인지, 아니면 인쇄매체를 보완 내지 보강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인지가 쟁점사항인 동시에 최대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먼저 디지털도서관론은 정보통신기술의 급진전으로 멀티미디어 시대가 개막되면 전자매체가 대중화되고, 대부분의 정보유동이 네트워크를 통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도서관에서도 전자매체 중심의 장서개발과 기존 자료의 디지털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代替性을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는 종이없는 사회의 도래, 멀티미디어 시장의 급성장, 디지털도서관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1995년 영국방송협회(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가 ‘독서광(Bookworm)’이란 프로그램을 제작할 목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명 가운데 2명이 2010년에는 종이책이 사라질 것으로 응답한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¹¹⁾ 그러나 국가적 및 사회적 정보인프라의 구축정도, 전자매체의 출판 및 유통량, 이용자들의 선호도와 수용능력,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비용, 종이책의 상대적 우수성 등을 감안할 때, 전자매체가 모든 인쇄매체를 대체한다는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며, 정보의 속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전통적 도서관론은 서물시대의 종언을 전면 부정하는 가운데 비록 신세기에 다양한 전자매체가 유통되더라도 인쇄매체를 압도할 수는 없으며, 전자매체가 보완되면 기존 장서에 대한 요구와 인쇄자료의 수요가 더욱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전자매체의 補強性을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전자매체의 낮은 점유율, 종이책의 유용성과 인쇄자료 지향적인 이용자

11) *Observer*, 26 November 1995, p. 3

습관, 인쇄매체의 출판 및 판매량의 증가추세, 도서대출 및 상호대차 이용율의 계속적 증가, 평가에서 장서지표가 차지하는 절대적 중요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도서관의 자료수집율이 세계출판물의 5% 내외에 불과하다는 추론¹²⁾과 1970년을 기준으로 2000년에는 미국 학술연구도서관의 평균 구매력이 90%까지 상실된다는 예측¹³⁾을 감안할 때, 단위도서관의 수집능력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실물자료의 수집에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전자매체가 도입되면 인쇄자료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논리는 근거가 부족하며, 장서수가 평가의 최우선 지표라는 논리도 설득력이 약하다. 왜냐 하면 미국 연구도서관협회(ARL)의 통계자료는 장서지표로 도서관의 우수성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장서수를 중심으로 순위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1990년 ARL 제117차 총회에서 회원도서관의 순위는 자료량이 아닌 온라인 및 컴퓨터네트워크 자원에 대한 접근의 질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통계위원회에서 질적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¹⁴⁾

따라서 콕(R. J. Cox)이 인류의 공예물인 인쇄도서는 지난 4세기에 걸쳐 정보와 지식을 배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정보시대를 발전시키는데 계속해서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듯이¹⁵⁾ 도서관이 향후에도 인쇄매체를 비롯하여 CD-ROM 및 온라인 정보매체를 활용할

12) R. M. Dougherty, "A Conceptual Framework for Organizing Resources Sharing and Shared Collection Development Program,"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 14, No. 6(Nov. 1988), p. 289; B. B. Higginbotham and S. Bowdoin, *Access versus Assessts*(Chicago: ALA, 1993), p. 8.

13) Michael E. Lesk, "デジタル情報とデジタル圖書館の將來的價値," *情報管理*, Vol. 38, No. 12(Mar. 1996), p. 1064.

14) Joel S. Rutstein, Anna L. DeMiller, and Elizabeth A. Fuseler, "Ownership versus Access: Shifting Perspectives for Libraries," *Advances in Librarianship*, Vol. 17(1993), p. 52.

15) Richard J. Cox, "Taking Sides on the Future of the Book," *American Libraries*, Vol. 28, No. 2(Feb. 1997), p. 53.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이상¹⁵⁾, 담론의 생산자들은 전자매체가 인쇄매체를 대체하는지 아니면 인쇄매체를 보강하는지에 대한 논지를 전개할 때, 대상자료의 범위와 성격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담론의 대상을 도서관의 모든 자료로 확대할 경우에는 전자매체가 인쇄매체를 보강하는 형국이 유력하지만, 수록정보의 속성에 따라서는 대체성이 강한 경우도 있다. 가령 종래의 특정 참고도서가 전자판으로 발행된다면 그것은 인쇄판의 보강이 아니라 대체성을 지니는 동시에 전체 참고도서의 장서개발을 보완 내지 보강한다. 마찬가지로 학술지 중에서 ‘Science’의 전자판은 인쇄판을 보완하지만, ‘Medline’은 ‘Index Medicus’를 대체하는 강력한 전자매체이다.

결국 다음 세기에도 전자매체와 인쇄매체의 발행비율, 이용자들의 정보추구행태, 도서관의 예산규모와 수집비율 등을 감안하면, 원문정보를 수록한 1차 자료자료의 경우는 전자매체의 보강성이 유력하지만, 서지정보를 수록한 2차 자료와 단편정보들은 전자매체에 의한 대체성이 지배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이 수집하고 축적할 印刷媒體와 電子媒體는 代替性이나 補強性的 關係가 아니라 共存性과 相補性的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5) Ron Ray, "Crucial Critics for the Information Age," *Library Journal*, Vol. 118, No. 6(1 Apr. 1993), pp. 46-49; Cheryl LaGuardia, "Virtual Dreams Give Way to Digital Reality," *Library Journal*, Vol. 120, No. 16(1 Oct. 1995), pp. 42-44; Talat S. Halman, "From Babylon to Liberspace," *American Libraries*, Vol. 26, No. 9(Oct. 1995), pp. 895-898; Robert L. Jacobson, "Desktop Libraries,"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 42, No. 11(10 Nov. 1995), pp. A23-26; Beverly Watkins, "Many Campuses Start Building Tomorrow's Electronic Library,"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 39, No. 2(2 Sept. 1992), pp. A19-21.

2. 정보접근과 실물소유

디지털도서관론은 전자매체의 적극적인 수집과 기존자료의 디지털화를 전제로 실물자료의 소장보다 정보접근을 더 중시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패러다임이 인쇄매체 중심에서 전자매체로 전환되어 장서와 건물은 부차적인 요소로 전락하며, 전문데이터베이스 위주의 디지털정보가 중심매체로 부상한다. 요컨대 정보중심의 接近 및 檢索奉仕를 우선하며,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브라우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接近機會를 極大化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전통적 도서관론은 실물장서가 중심매체인데 비하여 전자매체는 이를 보강하는데 불과하므로 문헌중심의 이용자봉사를 우선하며, 건물내에서 실제로 브라우징이 가능한 印刷資料의 利用機能을 極大化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 입장이 더 설득력을 지니는가? 각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점 또는 한계가 없는가? 과연 미래의 도서관은 전자매체로 무장하고 접근기능을 중시하는 가상공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변환경이 어떤 형태로 변모하던 인쇄자료를 충실히 갖추고 인간적 봉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실물공간이 바람직한지를 추론하고 예단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론에서는 정보의 접근·검색·원문제공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가장 중시하므로 도서관을 정보중심의 활동지원시스템(일종의 소프트웨어)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OPAC시스템의 가동, 정보네트워크의 구축,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의 발전, 인터넷 접속, 디지털도서관의 등장 등의 원격지 접근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서지정보는 물론 원문정보까지도 네트워크를 통해 검색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실물중심의 도서관을 수장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발전한다. 그러나 도서관의 존재이유와 이용자의 요구자료는 다양하다. 설령 정보접근과 제공기능이 중요하더라도 가상공간에서 접근가능한 정보자료는 대부분이 서지정보나 단편정보에 불과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접근환경이 성숙될수록 이용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다음으로 실물자료의 소유를 우선하는 전통적 도서관론에서는 자료이용, 독서공간의 제공, 지적 문화유산의 보존을 강조함으로써 도서관을 장서 및 건물중심의 활동지원시스템(일종의 하드웨어)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보수지향적 사고는 도서관이 지적 상품을 중개하는 대리점이 아니라 인쇄자료를 수장한 다음에 이용자에게 봉사하는 실물공간이라는 데서 발원한다. 그러나 실물장서가 중요하더라도 주어진 예산에 비해 구매력은 매우 낮고, 많은 도서관이 불용도서의 집적소, 책의 공동묘지로 평가절하될 정도로 적시에 적절한 정보자료를 공급하는 유기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며, 전자잡지가 각광받고 컴퓨터와 정보통신에 익숙한 세대들이 이용자집단을 형성하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원문소장 못지 않게 접근채널의 다양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보접근과 실물소유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經濟論理에 입각한 需要供給의 法則을 따를 수밖에 없다. 즉, 이용대상자와 정보매체의 특성, 그리고 경제성에 따라 소유개념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접근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예컨대 그리피스(Jose-Marie Griffiths)가 특수도서관을 대상으로 학술지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구독료가 120달러인 경우에는 실물소유와 원문제공의 분기점이 10.8회의 이용으로 나타났다.¹⁶⁾ 이처럼 이용도가 높은 학술지는 실물구독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호대차를 통한 원문제공방식이 바람직하므로 實物所有과 情報接近은 選擇性的인 問題인 것이다.

결국 미래도서관의 지향점은 정보접근의 극대화, 아니면 충실한 실물장서의 구축강화라는 차원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근대도서관이 등장하면서 실물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을 통하여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

16) Jose-Marie Griffiths and Donald W. King, *Special Libraries: Increasing the Information edge*(Chicago: Special Library Association, 1993), p. 165.

하는데 진력하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은 인쇄매체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미래에도 정보접근 중심의 도서관과 실물소유 중심의 도서관은 공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정보매체의 특성과 이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지향점을 차별화하되, 전체적으로는 절묘한 조화가 필요하다.

3. 정보전문직과 사서직

컴퓨터와 통신기술에 절대 의존하는 디지털도서관론은 인쇄매체가 아닌 전자매체를, 실물소장보다 정보접근을 더 중시하므로 물리적 공간에서 인간적으로 봉사하던 사서의 역할이 가상공간에서 중개기능을 수행하는 情報專門家 또는 檢索仲介者로 전환된다는 입장이다. 달리 표현하면 도서관의 대다수 업무가 전산화되고 자료가 디지털형태로 축적되면, 이용자들은 단말기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므로 전문사서의 역할도 실물자료를 매개로 하는 인간적 원조보다는 디지털정보를 검색하고 중개하는 기능적 원조로 전환된다는 논리이다. 반면에 실물장서를 도서관봉사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전통적 도서관론은 미래에도 전문사서를 우회하여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이용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현재처럼 사서의 인간적 원조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보제공을 유일한 기능을 간주하는 정보전문가가 아닌 튼튼한 실물장서를 바탕으로 자상한 도움을 주는 傳統的 司書로서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입장이 미래를 설득력 있게 통찰하고 있는가? 각각의 담론에는 논리적 비약이나 편협성이 없는가? 과연 미래도서관에서는 전통적 사서의 인간적 원조가 더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정보전문가로서의 기능적 원조가 더욱 요구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거리이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도서관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사서직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관건이 될 수 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론에서는 사서의 역할이 인쇄매체의 수집과 정리, 대출

및 참고봉사에서 각종 정보매체에 대한 봉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미래에는 자료의 디지털화와 원격지 접근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정보접근 및 검색기능을 제고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사례로 도서관업무의 전산화, 카드목록을 대체하는 온라인 열람용목록(OPAC)의 제공, 다종다양한 서지정보검색용 CD-ROM 데이터베이스의 구비, 정보네트웍의 구축, 국내외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인터넷 접속, 원문제공시스템의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도서관에는 인쇄매체와 전자매체가 공존하면서 상보성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인쇄매체를 통정하고 봉사하는 사서직의 전통적 역할을 무시한 채, 전자매체를 취급하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사서직의 미래상을 구현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다.

2다음으로 실물장서를 도서관의 핵심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전통적 도서관론에서는 미래에도 사서직이 인쇄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계승·보존하는 가운데 이용자에게 인간적으로 원조하는 봉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가장 역설적으로 표출한 것이 정보기술을 도서관 발전에 유용한 도구로 수용하지 않고 도서관보다 상위화두로 설정하는 기술 맹신주의자들과 사서를 정보전문가로 바꾸려는 사람들을 ‘圖書館의 敵’으로 매도한 대목이다. 그러나 세기말의 거대한 조류에 편승하여 사서직의 역할변화를 불가피하게 하는 미증유의 사례들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화법을 동원하여 매도하는 것은 정보기술의 유용성을 논의로 하더라도 퇴행적인 접근방식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주제전문가가 특정 주제분야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듯이 정보전문가도 다양한 정보매체를 수집하고 검색·제공하는데 정통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제공을 유일한 기능으로 상정하는 것은 지극히 편협된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미래의 사서가 정보전문가로 변신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지의 쟁점은 적용대상을 분명하게 한정

할 때, 그 피리가 좁혀질 수 있다. 모든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사서직이 정보전문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수 없지만, 전자매체와 정보네트웍을 전제로 하는 정보접근 및 검색환경에서는 사서보다 정보전문가가 더 설득력을 지닌다. 환언하면 이용자가 원격지에서 데이터 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사서의 무게중심이 종래의 人間的 援助에서 機能的 援助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정보전문가 내지 검색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의미이지 결코 사서직이 네트웍 항해자만을 지칭하는 정보전문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미래의 도서관에는 知識寶庫로서의 物理的 空間과 게이트웨이로서의 假想空間이 공존하는 형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전문사서는 종래의 역할에 情報濾過者, 정보의 附加價值 創造者, 게이트키퍼, 정보중개자, 情報教育者로서의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¹⁸⁾ 결국 수서정리나 대출 및 참고봉사에서는 전통적 사서직의 역할이 지속될 것이며, 정보의 접근이나 검색 및 원문제공봉사에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IV. 도서관 미래상의 형상화

1. 도서관의 역사적 및 변증법적 발전과정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갑론을박은 아직도 談論水準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21세기에는 인쇄자료로 누적된 도서관이 사라질 것인가. 미래 도서관은 어떤 형상으로 인간들에게 다가설 것인가. 장구한 인쇄문화를 대변하는 古色蒼然한 建物일까, 아니면 情報媒體에 生命力을 주입시키는 電子有機

18) 윤희운, 대학도서관경영론(서울:경인문화사, 1996), pp. 141-142.

體일까. 이 명제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미래상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변증법적 전개과정을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보매체와 이용자의 상관관계적 측면에서 도서관의 발전과정은 인쇄매체 중심의 전통적 도서관에서 자동화도서관으로, 그리고 전자도서관 내지 디지털도서관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지배 논리에 근거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회자되는 최상위 화두가 전자출판과 디지털도서관이다. 과연 정보매체의 전자화에 의한 디지털도서관이 미래도서관의 표상인가.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가정과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電子媒體의 大衆化와 書物時代의 終焉이라는 가정이다.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 전자매체가 대중화된다는 논리에는 공감하지만,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인쇄매체라는 점에서 종이책의 사멸은 가당치 않은 예측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구어와 문자, 필사본과 인쇄본, 단행본과 잡지, 라디오와 텔레비전, 연극과 영화, 자전거와 자동차 등이 대체관계가 아닌 것처럼 인쇄매체와 전자매체도 상호보완적 기능을 유지할 것이다.

② 전자매체는 인간의 오랜 讀書習慣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디지털도서관은 사회경제적 및 교육문화적 활동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구조적으로 변용시키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그러나 인쇄자료는 존재자체가 독서흥미를 유발하며 사색적 독서를 가능케 하지만, 전자매체는 부대장비와 기기조작을 요구하며 브라우저의 성격이 강하므로 독서행위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디지털도서관이 정보접근 및 검색행위에는 다대한 영향을 미칠지라도 도서관의 본질적 기능을 변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③ 디지털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인지된 실존시스템인지 아니면 가능성을 시사하는 차원인지, 만약 가능성을 시사한다면 技術的 可能性과 社會的 受容性 間의 乖離가 극복되어야 한다. 작금의 전자도서관 내지 디지털도서관의 범주는 CD-ROM 및 외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접속한 도서관, 타도서관

의 전자매체를 포함하여 인터넷 정보자료에 접근가능한 도서관, 소장자료의 부분적인 디지털화나 구입한 전자매체를 컴퓨터네트웍에 공개하는 도서관, 디지털계획을 실행중인 도서관, 인쇄매체를 전자형태로 전환하는 도서관, 전자자료를 무료공개하는 전자계산소·문서관·공공기관, 전자자료를 유료로 제공하는 영리업체 및 서지유틸리티, 전자자료를 집적한 인터넷 등이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이 수집매체의 디지털화를 전제로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무료봉사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할 때, 상술한 범주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도서관이 아니며, 기술적 가능성을 제외하여도 각 도서관이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미래도서관 중에서 소수의 대규모 도서관은 디지털화를 통한 정보공급자로서, 나머지 대다수는 이용자의 요구 내용에 따라 대응하는 정보소비자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미래도서관을 관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디지털도서관으로 상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다음으로 도서관의 발전과정이 辨證法的 展開論理에 적용되는지의 문제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담론의 대립양상은 전통적 도서관의 정립상태를 부정하는 디지털도서관의 반정립상태인 동시에 상호모순과 한계를 극복하는 화해과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正(對立), 反(矛盾), 合(統一)이라는 기본구조를 통하여 均衡論 혹은 併存狀態에 도달하는 변증법적 발전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전개과정은 항구적이거나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단계에 불과하므로 모순되는 양자간의 끊임없는 긴장관계와 규제관계를 에너지화함으로써 모순과 대립을 지양하고 고차원의 사고형식인 正 → 反 → 合 → 反 → 合...의 반복과정을 거쳐 더욱 발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실물공간을 강조하는 전통적 도서관과 가상공간을 지향하는 디지털도서관은 상호대립을 통하여 내재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또다른 형상으로의 일치화해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2. 미래도서관의 형상화

그렇다면 미래도서관을 어떻게 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미 담론의 쟁점분석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미래도서관에는 인쇄매체와 전자매체가 대체성이 아닌 상보성을 유지하고, 소장자료 중심의 실물공간과 정보접근 중심의 가상공간이 공존하며, 지식보고에서 활동하는 전통적 사서의 역할과 게이트웨이를 다루는 정보전문가의 역할이 동시에 요구된다. 그러므로 보수지향의 전통적 도서관과 급진적인 디지털도서관 중에서 하나를 미래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러한 입장은 미래모형을 전자도서관으로 상정할 경우,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현실을 무시하는 우둔한 행위가 되며, 과거의 도서관이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혼합체였듯이 미래에도 인쇄물·녹음자료·비디오·CD-ROM·온라인 매체가 혼재할 것이라는 예측¹⁹⁾과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선택적 가치보다는 양면적 가치를 수용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주장²⁰⁾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 基本原則의 再定立과 新奉仕戰略의 必要性, 情報媒體를 중심으로 하는 歷史的 發展過程과 辨證法的 展開過程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未來圖書館의 基本模型은 <표 3>과 같이 형상화할 수 있다.

19) Pat Oddy, *Future Libraries Future Catalogues*(London: Library Association Publishing, 1996), p. 20.

20) 이용남,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第34回 全國圖書館大會主題發表論文集: 정보환경의 변화와 도서관문화(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96),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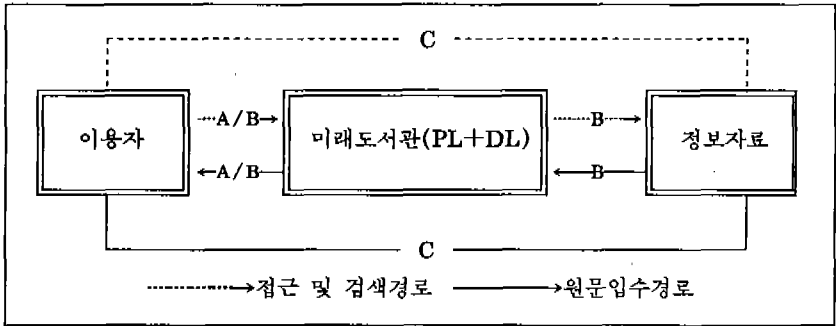
〈표 3〉 미래도서관의 기본모형

傳統的 圖書館 (Paper Library)	未來圖書館 (Future Library)	디지털(電子)圖書館 (Digital Library)
인쇄매체 (Printed Materials)	인쇄매체 + 전자매체 (PM) (EM)	전자매체 (Electronic Materials)
소장(Ownership)	소장 + 접근 (O) (A)	접근(Access)
사서(Librarian)	사서 + 정보전문가 (L) (IP)	정보전문가(Information Professionals)

이 모형에서는 고유기능을 증시하는 전통적 도서관상과 정보접근 및 검색능력을 강화하는 디지털도서관상이 단일시스템내에 또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공존하게 된다. 요컨대 접근중심의 假想空間이나 실물장서 중심의 物理的 空間은 '도서관'이라는 情報資料 集積所의 部分集合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 현재의 도서관이 과거의 기반위에서 존립하듯이 미래 도서관이 현재의 토대위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론적 측면에서 보면, 외형과 내면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변모하든간에 미래의 도서관을 지칭하는 멀티미디어, 전자, 디지털, 가상 또는 가상현실 따위의 접두어는 '도서관'을 설명하는 종속적 어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FL(\text{미래도서관}) = PL + DL = [(PM + EM) + (O + A) + (LN + IP)] = L(\text{도서관})$ 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러한 모습의 미래도서관에서 정보자료의 接近檢索 및 原文傳達 模型은 〈그림 1〉와 같이 多乘接近經路로 形象化할 수 있다. 경로 A는 소장자료에 대한 傳統的 接近方式으로 OPAC이나 색인초록지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서지정보를 검색하고 디지털원문을 다운로드하거나 서가에 접근하여 실물자료를 이용하는 형태이다. 경로 B는 미소장자료에 대한 伸介型 接近方式으로 도서관에 접속된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관외의 정보자료에 접근

하여 검색한 다음, 도서관을 경유하여 입수·전달받는 형태이다. 그러나 경로 C는 도서관과 무관하게 상업통신망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자료를 검색하고 입수하는 獨立型 接近方式이다. 따라서 미래도서관은 경로 A에 치중하되, 경로 B를 통하여 정보봉사력을 확장시켜야 한다. 만약 대다수의 이용자가 경로 C를 선택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도서관은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그림 1) 미래도서관의 접근·검색·원문전달 모형

V. 결론 및 제언

과거의 행적을 반추하여 미래의 至福千年을 구상하는 것은 人之常情인 동시에 일종의 定言的 命題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기말의 결산과정과 신세기의 설계작업은 전통적 도서관론과 디지털도서관론의 심각한 대립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엄습한 전자매체와 디지털도서관론은 인쇄매체와 전통적 도서관을 초토화 내지 생매장시킬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대항하여 전통적 도서관론이 일전불사의 자세로 토해내는 독설은 왕조시대의 유물을 지키려는 빗장처럼 둔중한 분위기와 형상을 자아낸다.

기술지상주의에 근거하는 디지털도서관은 정보자료가 비트와 바이트로 존재하는 假想空間의 概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으로 ‘非人間化’가 초래될 개연성이 높다. 환언하면 사서와 이용자의 대면을 통한 인간적 원조가 이용자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기능적 원조로 전환되고, 봉사내용보다는 접근 및 검색방법을, 지혜의 깊이를 파악하기 보다는 정보의 소재지를 추적하는데 치중하므로 인간적 접촉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디지털도서관 주창자들은 정보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비트정보를 보면서 기술낙관주의에 전배를 외칠지 몰라도 그로 인하여 도서관의 正體性이 분열되고 중국에는 學習과 研究, 讀書과 文化空間으로서의 역할이 증언을 고하게 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 도서관은 實物資料의 書架存置를 전제로 하는 物理的 空間概念이다. 수천년에 걸쳐 농축된 인쇄자료 중심의 도서관상은 미래에도 그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며, 부조리한 제도와 관행을 혁파하고 부실한 현장을 개선하고 기본찾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논지에 공감한다. 다만 전통적 도서관론자들이 종래의 잣대로 미래상을 재단하거나, 이구동성으로 현장의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대안없는 반박논리에 몰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미래도서관에서는 전자매체, 정보접근, 게이트웨이를 중시하는 패러다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대상황에 상치되는 假言의 話法도 자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래도서관에 대한 담론도 전통적 도서관의 기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제하에 정보접근 중심의 디지털환경을 조성함으로써 相補性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戰略的 計劃과 具體的 方法論을 논의하고 개발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디지털도서관이나 전통적 도서관은 결국 ‘도서관’이라는 知識寶庫의 부분집합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제로섬 게임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양면적 가치를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요컨대 모든 표면적 현실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실체가 내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염두에 두고 도서관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보기술을 수용하여 시스템의 形質變更과 機能提高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Analysis of Discussion and Dispute on the Future Library Model in Korea

Hee-Yoon Y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verview a recent dispute of the library of the 21st century in Korea and to suggest a desirable model of the future library.

There are two visions of the future of library. The first is an access based library model(digital library) emphasizing the digital resources that are networked and browsable electronically. The second is an ownership-based library model(paper library) which emphasize the use of traditional print collections stored locally and physically browsable. A points of dispute between the paper library as storehouse and the digital library as gateway are an electronic informations versus printed materials, access versus ownership, information professional versus librarians.

The idea that library as physical place and as cyberspace are diametrically opposed is a fallacy and surrealistic opinion. Future library has to acquire, organize, preserve, and make accessible the collections that users want and need. In other words, future libraries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aegu University

need both ownership and access. Access to remote electronic resources must serve as a reasonable substitute for holdings of older material. Therefore, it is a balanced solution that the more heavily used or important material be considered for ownership and selective information resources for access. No doubt, the traditional library and the digital library will be coexist in the 21 century.